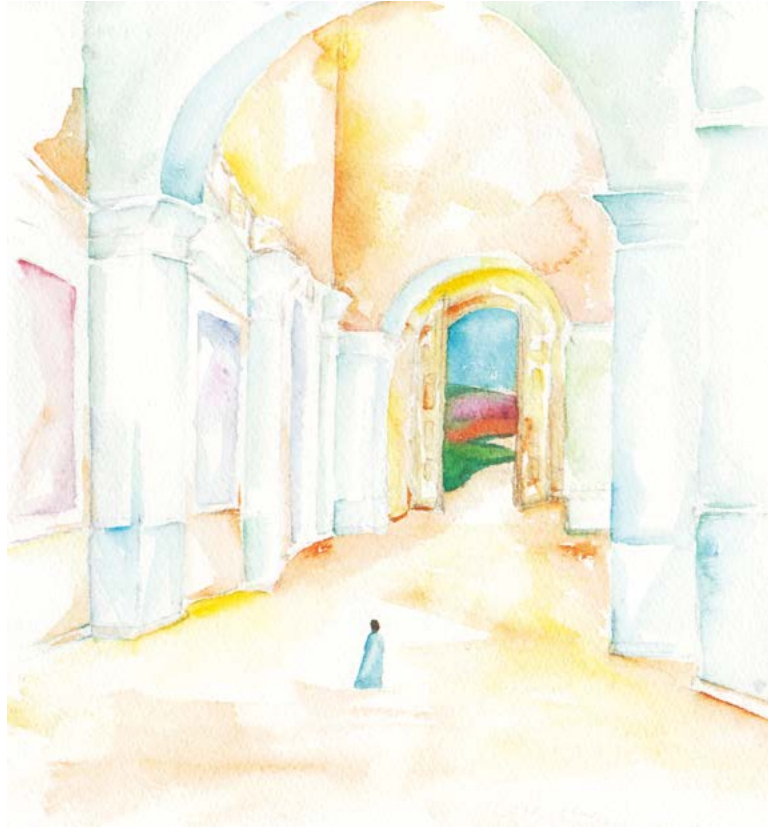


51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7절, 22장



천국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급을 준비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면 졸업 할 때 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직접 본 바울은 하루 빨리 천국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헤어지는 일도 없고 슬퍼서 우는 일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몸이 다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천국은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5)



이렇게 천국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들어갈 만큼 넓고 큰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¹⁾일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고가 같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은 천국을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시며 과학자이시고 지혜와 지능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며 달마다

열두 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¹⁾일만 이천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인데
 1스타디온이 옛날 로마 경기장의 길이로 186.5m에
 해당됩니다.
 계산해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2220km로
 남북한 길이의 두 배 정도입니다.
 바닥면적은 인도만하고 부피로는 달의 크기 정도입니다.



오늘의 공부

천국으로 가는 방법

1.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다음 그림에서 골라 보세요. ()



① 목사님



② 착한 사람



③ 돈이 많은 사람



④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

천국에 있는 것

2. 다음 말씀을 찾아 읽어 보고 천국에 있는 것에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천국에 없는 것에는 세모를 그려 보세요.

시편 149:5, 시편 148:1, 고린도후서 3:18, 요한계시록 21:3~4,
시편 16:11, 이사야 25:8, 요한계시록 21:23, 요한계시록 22:3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곳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달리는 이유

민숙이가 이번 시험에서 1등하면 엄마가 컴퓨터 사줄께!



열심히 공부해야지!



엄마 1등 했어요. 야호! 신난다.



그래. 정말 잘했다. 약속대로 컴퓨터를 사 주마.



1. 민숙이가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엄마가 약속대로 컴퓨터를 사 주셨을 때, 민숙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 우리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생각하면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다음 보기처럼 여러분도 천국을 생각하며 했던 일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을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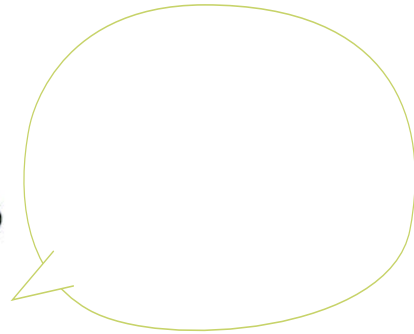
(왜냐하면 천국이 있고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마른 친구에게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동생이 나를 괴롭혔지만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용서했습니다.



기록된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9)



예 화

* 우리 아버지 집은 더 좋습니다

뉴질랜드의 타마바나 총독이 영국을 방문하여 런던 근처의 아름다운 저택과 여러 명승지를 둘러보았습니다. 한 저택을 돌아본 총독이 별로 놀라거나 부러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자 안내인은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집은 초호화판으로 꾸며져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수입해 온 비싼 가구들로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기 전 타마바나 총독은 안내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은 이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정말 당신 아버지 집이 그렇게 좋단 말입니까?”

총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저택들에 대해서 안내인에게 설명 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안내인은 총독의 말일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